

# 무화과 막걸리와 쌀·고구마 맥주 출시 가시권

### 영암군, 삼호주조장과 전통주 개발 업무협약 체결

#### “농산물 계약재배 소득 올리는 선순환구조 만들자”

영암 특산물 무화과로 만든 막걸리, 쌀과 고구마로 제조한 수제맥주 출시가 가시권 안에 들었다.

영암군이 17일 군청 낭산실에서 삼호주조장과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음회도 열었다.

영암군과 삼호주조장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삼호주조장 개발 협력 강화 △전통주 산업 성장·발전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

특히, 다음달 15~17일 열린 영암 무화과축제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시음행사를 열기로 했다. 나아가 올해 10월 영암군민의날 행사에서 정식으로 영암 전통주를 출시하기로 했다.

협약식을 마친 양측은 군청 구내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전통주, 수제 맥주 시음회를 열었다.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시음회에서 참가자들은, 이현진 삼호주조장 대표가 영암 특산물 무화과를 제조 중인 막걸리, 윤희석 무등산브루어리 대표가 영암의 쌀과 고구마로 만든 수제맥주의 빛·향·맛을 놓고 각자의 느낌을 공유했다.

아울러 시음장 한쪽에 마련된 막걸리와 수제맥주 이름 붙이기 투표에도 참여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농산물로 만든 영암 대표 술이 전국에 알려지고, 농가는 술 재료인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며 “오늘은 농사지어서 잘 사는 영암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즐거운 자리다”고 밝혔다.

영암 대표 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협약식과 시음회에는 우승희 영암군수 이외에



도 강찬원 영암군의회 의장과 의원, 임정빈 농협영암군지부장 등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영암군 대표 수제맥주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제조 중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 강종만 영광군수, 국회 방문 국고 예산 확보 총력 기울여 국민의힘 성일종 면담...지역현안 건의

강종만 영광군수는 8월 18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면담하고 2024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8월 9일에 이어 두 번째 국회를 방문한 강종만 군수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내년도 지역현안 국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6건, 678억원으로 ▲수출주력형 e-모빌리티 공동생산 기업지원(90억원), ▲영광우평지구 배수개선사업(85억원), ▲범성정수장개량사업(238억원), ▲염산신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63억원), ▲영광송림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119억원), ▲홍농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3억원) 규모다.

이날 성일종 국회의원은 영광 군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영광송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국비 43억원)과 홍농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국비 30억원)이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강종만 군수는 연초부터 전라남도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2024년도 국고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쳐왔다.

강종만 군수는 “우선, 영광군에 대한 성일종 의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합평군 기획예산실, ‘슬기로운 청렴생활’ 청렴시책 추진

#### 선·후배간 라떼타임(Latte Time), 청렴퀴즈대회 등 실시

합평군 기획예산실(실장 장정진)은 20일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청렴 시책 일환으로 선·후배간 라떼타임 및 청렴퀴즈대회를 추진해 직원 간 소통과 청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지난 18일 가졌다”고 밝혔다.

선·후배 간 라떼타임(Latte Time)은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 중간관리자가 한자리에 모

여 차를 마시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가 바로 청렴왕’이라는 주제의 퀴즈대회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도 제고의 시간을 가졌다.

합평=김광훈 기자

### 신안군, 2023년 공무원 청렴 교육 실시

신안군은 지난 17일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전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지고 직장 내 감질을 예방해 조직문화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기경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강사가 참여해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실태, 개정행동강령과 감질 금지, 청탁금지법 사례 등 교육을 진행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 목포시, 추석기간 섬주민 생활물류 (택배) 운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추석을 앞두고 목포 지역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든다.

목포시가 도심보다 비싼 섬 지역에 9월 한 달간 섬지역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비 1,880만원의 예산을 투입, 섬 지역 주민이 9월 한 달간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예산 상황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이용한 택배 추가운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의 달리도, 울도, 외달도, 장좌도, 우도 5개 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주민 약 451명이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목포시청 해양항만과(목포시 양율로 203)에 우편을 통해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섬 주민 1인당 3만5천원 이내이며,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신청 택배사의 택배 이용정보를 활용, 11월 중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유달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했고,



추후 더 많은 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주민참여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며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무안군 삼향읍, 여름철 해충퇴치 위한 친환경 방역 소독 추진...주3회 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발생지역

무안군 삼향읍(읍장 김윤덕)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방역 소독을 추진했다.

삼향읍은 해충 살충제, 기피제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여름철 해충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 밀집 지역과 침수 피해 지역 등 해충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윤덕 삼향읍장은 “고온다습한 시기에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삼향읍은 올해 5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였으며, 집중 방역 활동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우천 시를 제외하고 연기와 냄새 없는 친환경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